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5 pp. 226-236,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5.22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정은선[1], 하정희[2*], 이성원[3]
[1]한라대학교 교직과정부, [2]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3]한양대학교 한양상담센터

The Effects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Superiority and Others' Approval) on College Students' Adjustment and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The Roles of Cognitive Flexibility as Mediators

Eun-Sun Jung[1], Jung-Hee Ha[2*], Sung-Won Lee[3]
[1]Division of Teaching Profession, Halla University
[2]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3]Hanyang Counseling Center,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타인승인이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4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은 대학생활적응과 미래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은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을 거쳐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을 통해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인지적 유연성과 부적인 관계에 있으나 인지적 유연성이 높으면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가치가 우월성에 기반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자신과 상황에 적응적인 생각을 취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기가치감이 타인의 승인을 기반으로 한 것일지라도 상황과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조력한다면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대한 부적응적 측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 및 타인승인이 현재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성공에 대한 기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 및 타인승인이 높은 내담자를 이해하고 조력할 수 있는 개입으로서 인지적 유연성이 핵심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ingencies of self-worth(superiority and others' approval), college adjustment and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and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flexibility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study, data from 460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Contingencies of self-worth(superiorit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llege adjustment and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while contingencies of self-worth(others' approval)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llege adjustment and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Second,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cognitive flexibil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superiority and others' approval) with college adjustment and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Third, even 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other's approval)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gnitive flexibility, and if the latter was high, it influenced college adjustment and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Finally,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implicationsfor counseling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were discussed in detail.

Keywords : contingencies of self-worth(superiority, others' approval), college adjustment, cognitive flexibility,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Corresponding Author: Jung-Hee Ha(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Tel: +82-2-2220-2613 email: hajung366@hanmail.net
Received April 10, 2017 Revised May 8, 2017
Accepted May 12, 2017 Published May 31, 2017

1. 서론

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1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1]. 자신과 타인에 의한 인정, 부모에 의한 인정, 국가 자부심, 사회로부터의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타인으로부터의 인기, 신체적 매력-외모, 자녀에 대한 만족, 자신의 성취, 사회 봉사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자신과 타인에 의한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부모에 의한 인정, 경제력, 자녀에 대한 만족 등이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타인에 비해 우월하다거나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중요인 요인이며, 이렇게 형성된 자존감은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특정 영역에서 성패가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며, 수반된 자존감 영역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2]는 개념이다. Crocker 등[3]은 자존감이 특정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평가의 결과라는 James의 중요성 가설[4]을 정교화 하여 자기가치감 수반성 이론(Contingencies of Self-Worth Theory)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영역에서 추구하는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 자존감이 달라진다고 본다.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 영역에 수반된 자기가치감이 높으면 해당 영역의 성패에 민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치감의 변화를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치감 수반성 이론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가 개발되었고[2] 한국에서는 이수란과 이동귀[5]의 연구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졌다. 이 척도가 학업적 자신감,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 외모, 경쟁, 신의 사랑, 미덕 등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던 것[3] 이수란과 이동귀[5]의 연구에서는 우월성,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 신의 사랑, 도덕성 등의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척도 개발 당시 미국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개념과는 다르게 학업적 자신감, 외모, 경쟁 요인이 하나의 요인(우월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학업에서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에서 앞서고자 하며 외모를 잘 가꾸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우월함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 요인은 학업이나 진로 등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자존감 및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의견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것이다[3].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2] 다른 인종 집단(미국에 거주하는 백인, 흑인 집단)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 승인이 자존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동양인 집단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타인으로부터의 승인 여부와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는 동서양이 다를 수 있으며, 동양인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승인 여부가 자기가치의 구체적인 평가와 더 많이 관련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1]에서 자신과 타인, 부모에 의한 인정, 경제력, 자녀에 대한 만족 요인 등이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준 결과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월성과 타인의 승인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우월성 및 타인승인이 개인의 적응적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타인승인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변인은 대학생활적응이다. 대학생활적응은 현재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대처해 가는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사회적응을 포괄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6]. 이미 정해진 시간표와 일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생활하던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모든 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대학생활은 상당한 수준의 적응을 요구한다. 대학생활에서 적응은 단순히 학업의 성취여부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나 효과적인 위기관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다면적인 대학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학생활적응과 개인의 인지적 변인이 관

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존중감[7-8]과 마인풀니스, 자기통제력[9] 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자기에 대한 보다 정교한 관점인 자기가치감 수반성도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학업적 유능성은 경쟁의 한 영역이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11]. 또한 자존감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12-13]을 통해 개인의 자기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 더 잘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반면에 타인의 승인에 따라 자기가치감이 달라진다면 타인의 가치나 기준에 따라 자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에 부적응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가령, 학업적 유능성에 자기가치를 더 많이 수반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실패를 피하려는 경향이 더 커지는 등[11]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능감 역시 타인의 가치를 토대로 형성하는 정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가치감의 타인승인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부적응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정 영역에 대해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평가인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대한 이해는 개인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 정서, 사회적 관계 전반에 걸쳐 원만하게 대학생활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영역에 수반된 자기가치감은 현재 개인이 당면한 과제나 생활사건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대학생활적응이라는 현재 당면과제 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관련되는 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14], 미래성공기대는 부모 태도, 학업성취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되었다. 부모태도와 미래성공기대와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는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방식이 자녀의 자존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개인의 학업성취는 물론 미래 성취에 대한 기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미래의 성공기대가 커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는 자기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인식이 당면한 현재의 성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래의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영역에 수반된 자기가치감이 현재의 대학생활적응에서 나아가 미래의 성취에 대한 기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업 및 진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내 상담기관을 찾는 대학생들은 현재의 성취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취에 대한 불확실감과 걱정을 호소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한다. 따라서 학업 및 진로, 취업 등과 관련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외적 조건으로 인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자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 승인이 현재의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학업 및 진로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조력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한편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적응수준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에서도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대학생의 적응유연성 신념이 높으면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15]나 마인풀니스가 높으면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는 보고[9]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지적 유연성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은 당면한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면에서 유연함을 의미한다[16]. 또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상황이나 복잡한 문제라도 흥미를 가지고 회피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17]. Martin과 Rubin[16]은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을 최대화 하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자신감이 높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인지적 유연성이 자존감을 최대화 하려는 방식

으로 기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면, 특정 영역에서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개인이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18]에서 자기개념복잡성은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된 바 있다. 인지적유연성은 자기개념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유연한 사고 과정이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가치감 수반성도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을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우월성, 타인승인)과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기가치감 수반성(우월성, 타인승인)의 특성에 대해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현재 대학생활적응과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을 인지적 유연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이 인지적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적 유연성은 대학생활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리고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인지적 유연성, 대학생활적응, 미래성공기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인지적 유연성은 대학생활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외적 기준에 근거한 타인의 승인이 우월성 같은 내적 참조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심리적 부적응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결과[19-20]에 근거하여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이 대학생활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그림 2의 경쟁모형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타인승인이 인지적 유연성에, 인지적 유연성은 대학생활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그림 1과 같으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이 대학생활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신 인지적 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 및 타인승인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 및 타인승인과 미래성공기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 및 타인승인과 대학생활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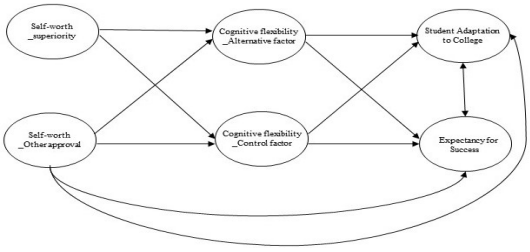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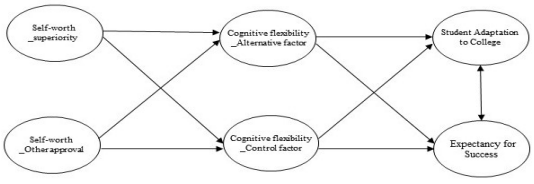

Fig. 2. Competition Model

2.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남, 여 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을 제외한 총 460명(남 198명(60.4%), 여 141명(39.3%), 무응답 1명(0.2%)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설문지는 자기가치감수반성척도, 대학생활적응척도, 미래성공기대척도, 인지적유연성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였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15~20분이었다.

2.2 측정도구

2.2.1 자기가치감수반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가치감수반성 척도는 Crocker 등[2]이 개발한 척도(The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를 이수란과 이동귀[5]가 타당화 한 것(K-CSWS)이다. CSWS는 본래 학업적 자신감,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 외모, 경쟁, 신의 사랑, 미덕 등 7개 영역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K-CSWS에서는 우월성(학업적 자신감, 외모, 경쟁 포함), 타인의 승인, 가족의 지지, 신의 사랑, 도덕성의 5요인으로 확인되었다. 7점 Likert 식(매우 동의하지 않음(1)~매우 동의함(7))이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수반된 자기가치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Crocker 등[2]의 연구에서 보고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였으며 이수란과 이동귀[5]의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타인승인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신뢰도는 우월성 .89 타인승인 .80이었다.

2.2.2 대학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신지연[21]이 사용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6]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신지연[21]이 총 67문항 중 유사문항과 반복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다른 하위요인들과 중복된 대학 환경적응척도를 제외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총 25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정서적 적응, 학업 적응, 사회 적응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전혀 아니다(1)~매우 그렇다(5))식이다.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신지연[21]의 연구에서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는 .81로 나타났고, 개인・정서적 적응 .70, 학업적 적응 .71, 사회적 적응 .86으로 나타났다.

2.2.3 미래성공기대 척도

미래성공기대는 Fibel과 Hale[22]의 성공기대척도(Generalized Expectancy for Success Scale)를 김태환[23]이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30개 문항의 5점 Likert식(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척도이나 김태환[23]이 2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성공 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Fibel과 Hale[22]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Cronbach' α)는 .92였으며 김태환의 연구에서 .7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9였다.

2.2.4 인지적 유연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ennis와 Vander Wal[24]이 개발하고 허심양[25]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은 대안요인 12문항, 통제요인 8문항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요인 부하량이 적은 한 문항을 제외하여 대안요인 11문항, 통제요인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식(전혀 아니다(1)~매우 그렇다(5))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Dennis와 Vander Wal[24]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Cronbach' α)는 .86, 대안요인 .85, 통제요인 .84였으며, 허심양[25]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전체 .86, 대안요인 .87, 통제요인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요인 .89, 통제요인 .6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SPSS 18.0를 이용하여 먼저 전체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모델을 먼저 추정한 후 구조모델을 추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고자 절대적 적합지수로서 x2/p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절대적 적합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고,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를 위하여 비표준 적합지수 TLI와 비교적합도 CFI를 사용하였다. TLI지수와 CFI 지수가 .90 이상일 때 대체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며, RMSEA 지수는 .5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 .80 이상일 때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일 때 나쁜 적합도로 간주된다[26]. 한편,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ootstrap를 실시하였고, 인지적 유연성과 대학생활적응, 미래성공기대에 대한 주요 잠재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론

3.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서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고자 측정 변인들의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1).

Table 1. Correlations of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skewness and kurtosis(N = 460)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contingencies of self worth	1. superiority1	-	.70***	.13**	.19***	.31***	.26***	.01	.01	.15**	.11*	-.08	.05	.12*
	2. superiority2		-	.23***	.23***	.32***	.25***	-.06	-.09	.24***	.05	-.10*	.02	.11*
	3. other approval1			-	.67***	.01	-.10	-.26***	-.25***	-09*	-.22***	-.23***	-.22***	-.13**
	4. other approval2				-	04	-.06	-.26***	-.24***	-.11*	-.21***	-.29***	-.25***	-.16***
cognitive flexibility	5. Alternative1					-	.74***	.19***	.10*	.23***	.20***	.09*	.22***	.25***
	6. Alternative2						-	.36***	.27***	.26***	.30***	.22***	.37***	.36***
	7. Control1							-	.50***	.17***	.45***	.50***	.44***	.38***
	8. Control2								-	.12*	.29***	.40***	.45***	.38***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9. academic									-	.30***	.31***	.34***	.36***
	10.social										-	.43***	.41***	.36***
	11.personal-emotional											-	.39***	.42***
expectancy for success	12.expectation1												-	.62***
	13.expectation2													-
	M	5.10	5.10	4.43	4.11	3.79	3.64	3.11	3.01	3.20	3.57	2.94	3.88	3.76
	SD	1.09	1.03	1.49	1.25	.63	.62	.68	.43	.65	.79	.61	.96	.98
	skewness	-.46	-.43	-.23	-.24	-.16	.17	.53	.09	-.07	-.47	.39	-.64	-.57
	kurtosis	.55	.55	-.48	.12	-.48	-.18	1.04	.59	.14	.36	1.26	-.16	-.15

$^{*}p < .05$, $^{**}p < .01$, $^{***}p < .001$

자기가치수반성의 우월성, 자기가치수반성의 타인승인,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과 통제요인, 미래성공기대는 단일 변인이기 때문에 각각 2개의 측정변인을 문항 꾸러미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 변인은 세 개의 하위차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켜야 하므로[2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에 대해 각각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변인들의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을 통해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은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및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인지유연성의 통제요인 및 대학생활 적응, 미래성공기대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은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 대학생활 적응, 미래성공기대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대학생활적응과 미래성공 기대 간에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3.2 가설모형검증 결과

3.2.1 측정 모형 검증

가설 모형 검증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때 전체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변인 전체의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으며[28], x^2(N=460, df=50)은 165.03(p <.001), CFI는 .95, TLI는 .92, RMSEA는 .07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가 타당하다고 파악할 수 있다.

3.2.2 구조 모형 검증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이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과 통제요인을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과 대학생활 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의 직접 경로를 포함하는 연구모형과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쟁모형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Fit between research model and competitive model

	x^2	df	p	CFI	TLI	RMSEA (90%Confidence interval)
research Model	257.83	55	.00	.91	.87	.09(.08～.10)
competition model	251.72	56	.00	.92	.88	.09(.07～.10)

표 2를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CFI와 TLI, RMSEA

의 적합도 지수 값이 양호하였다. 그러나 x^2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경쟁모형이 더 간명하게 나타나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에 대한 변수들의 모수를 추정하고, 관련 변인들의 직접, 간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값을 의미한다.

그림 3과 표 3을 살펴보면,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은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43, p < .001),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은 대학생활 적응(.17, p < .01) 및 미래성공기대(.28,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19, p < .001)과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49, p < .001),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은 대학생활 적응(.17, p < .01) 및 미래성공기대(.28,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은 대학생활 적응(.82, p < .001) 및 미래성공기대(.66,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모두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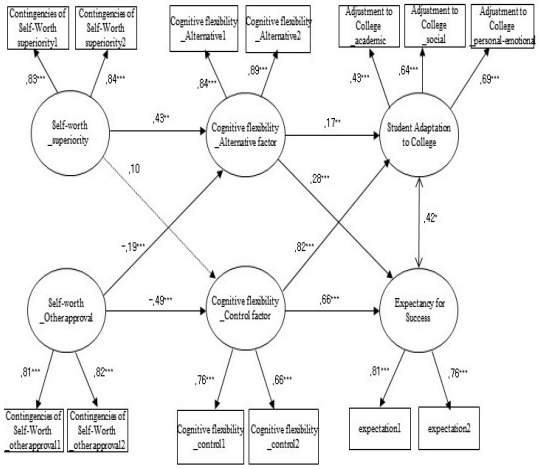

Fig. 3. Path of final model
*(*p < .05, **p < .01, ***p < .001)*

Table 3. Estimates of parameters, standard error and test statistic

Path coefficient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 error (S. E.)	Test statistic (C. R)
contingencies of self worth-superiority → alternative factor	.25	.43***	.04	7.12
contingencies of self worth-superiority → control factor	.06	.10	.03	1.82
contingencies of self worth-other approval → alternative factor	-.08	.35***	.02	-3.49
contingencies of self worth-other approval → control factor	-.21	-.49***	.03	-7.51
alternative factor →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09	.17**	.03	3.02
alternative factor → expectancy for success	.40	.28***	.07	5.50
control factor →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44	.82***	.06	7.08
control factor → expectancy for success	.98	.66***	.10	9.54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 expectancy for success	.03	.42*	.01	2.57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기준 변인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후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에 대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의 설명량은 12.5%로 나타났고,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에 대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설명량은 10.3%였다. 한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 요인 및 통제요인의 설명량은 31.4%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생활 적응에 대하여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영향력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미래성공기대에 대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 요인 및 통제요인의 설명량은 33.3%로 나타났는데,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4. Effects of predictors on criteria variables

Standard variable	Predictive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2
alternative factor	contingencies of self worth-superiority	.43	-	.43	.125
	contingencies of self worth-other approval	-.19	-	-.19	
control factor	contingencies of self worth-superiority	.10	-	.10	.103
	contingencies of self worth-other approval	-.49	-	-.49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contingencies of self worth-superiority	-	.15	.15	.314
	contingencies of self worth-other approval	-	-.43	-.43	
	alternative factor	.17	-	.17	
	control factor	.82	-	.82	
expectancy for success	contingencies of self worth-superiority	-	.19	.19	.333
	contingencies of self worth-other approval	-	-.37	-.37	
	alternative factor	.28	-	.28	
	control factor	.66	-	.66	

Table 5. Result of verifying mediating effect

Route	Indirect effect	90%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contingencies of self worth-superiority → alternative factor →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15*	.04	.25
contingencies of self worth superiority → alternative factor → expectancy for success	.19**	.09	.27
contingencies of self worth_other approval → alternative factor →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 control factor	-.43**	-.53	-.34
contingencies of self worth_other approval → alternative factor → expectancy for success → control factor	-.37**	-.47	-.29

*$p < .05$, **$p < .01$

다음으로 기준 변인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후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에 대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의 설명량은 12.5%로 나타났고,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에 대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설명량은 10.3%였다. 한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 요인 및 통제요인의 설명량은 31.4%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생활 적응에 대하여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영향력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미래성공기대에 대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 요인 및 통제요인의 설명량은 33.3%로 나타났는데,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를 통해 볼 때, 하한값(lower)과 상한값(upper) 사이에 0이 없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가정한다[27].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은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과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요인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타인승인이 대학생활 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460명의 결과가 분석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 및 타인승인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은 대학생활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대학생활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7-8]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특정영역에 수반된 자기가치감으로서 타인보다 학업, 외모, 경쟁 등에서 더 나은 성취를 추구할수록 즉, 우월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더욱 잘 적응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수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 및 타인승인과 미래성공기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은 미래성공기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미래성공기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이 높을수록 미래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타인의 승인에 기반한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미래성취에 대한 기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스로가 타인보다 학업이나 외모, 경쟁 같은 영역에서 더 나은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은 미래성공에 대한 기대에 도움이 되지만, 타인의 승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여길수록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에는 유익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1]를 확장하여 미래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영향력이 당면한 생활을 넘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발그니와 류정희[11]의 연구에서 확인한 자기가치감 수반성(학업적 유능성과 가족의 지지)은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타인승인이 대학생활 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가치감 수반성 하위요인에 따라 관련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므로, 추후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관한 연구는 하위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정교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과 타인승인이 대학생활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은 대학생활 적응, 미래성공기대, 인지적 유연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대학생활적응과는 정적 상관을 인지적 유연성과 미래성공기대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가설 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측정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대학생활 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하위요인에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은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안 요인을 찾음으로써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생활 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은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요인과 통제요인을 거쳐 대학생활 적응 및 미래성공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타인승인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가 타인으로부터 승인에 기반한 것이므로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지만 타인의 승인에 기반한 자기가치감이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 사건과 상황에 닥쳤을 때라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대안을 찾고 스스로 통제한다고 여기는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과 미래성공에 대한 기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Martin과 Rubin[16] 인지적으로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환경으로부터 압력을 느끼는 경우에도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적응함으로써 자신감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인지적 유연성은 생활 적응을 돕는 유용한 변인으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타인의 승인에 기반한 자기가치감이 높을 학생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주어진 상황과 사건을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대학생활에서의 원만한 적응과 미래에 대한 성취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우월성 및 타인승인이 현재 적응의 한 단면으로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미래성공기대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당면한 현재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성취 기대와도 관련됨으로써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였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남보다 앞서려는 우월성에 기반한 자기가치감과 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기반한 자기가치감은 학업, 정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현재 대학생활과 미래 성취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교내 상담기관을 방문했을 때, 어떠한 영역에 기반하여 자기가치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월성에 기반한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내담자에게는 대안요인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대학생활 적응과 미래성공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타인으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데에 기반한 자기가치감이 높은 학생은 스스로가 처한 상황과 사건 등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원만하게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미래성취를 긍정적인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타인승인에 기반한 자기가치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면한 곤란이나 미래에 예상되는 어려움에서도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는 조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특정 영역에 수반된 자기가치감 수준 자체를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보다, 개인의 인지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인지기술 훈련을 포함한 집단 상담이나 심리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따른다.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자기정체감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는 대학생에 비해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좀 더 민감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대학생이 아닌 다른 집단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으로서 인지적 유연성의 역할을 확인하였으나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되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측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측면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미래성공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영향이 현재를 넘어설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진로탐색 및 결정 등과 같은 미래설계와 관련된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G. H. Cha., G. W. Hong., M. S. Kim., Han, Y. S.,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self-esteem and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scale among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5*(1), 105-139. 2006.

[2]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Bouvrette, S.,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94-908. 200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5.5.894

[3] Crocker, J., Wolfe, C. T.,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 593-623. 2001.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108.3.593

[4] James, W.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Vol. 1, 1890. DOI: https://doi.org/10.1037/11059-000

[5] S. R. Lee., D. G. Lee., "The effect of discrepancies between a given domain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its self-evaluation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313-335. 2008.

[6] Baker, R. W., &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7] S. Y. Park., *The affection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8] J. H. Hyun., *A study on college students' self-consciousness and self-respect on their adaption to school life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5.

[9] H. S. Yu., B. S. Kim., "The relationship of mindfulness and self-control to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1), 231-249.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1.201502.231

[10] H. G. Jang., *Validation study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2010.

[11] B. K. N. Cho., J. H. Lyu.,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competence and family support) self-worth contingency in the relation of study skill and college students'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8), 1-21. 2012.

[12]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178-2186. 2013.

DOI: http://doi.org/10.5762/KAIS.2013.14.5.2178

[13] E. J. Hong., *The effect contingencies of self-worth, self-consciousness on college student adjustment.*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2016.

[14] J. Y. Lee, J. H. Ha., S. H. Jeon., "The effects of parents' interacting modes in achievement settings on adolescents'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ole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4), 873-890. 2006.

[15] B. O. Choi., *The effect of the college students' resilience belief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the students; daily hassle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7.

[16] Martin, M. M., Rubin, R. B., "A new measure of cognitive flexibility," *Psychological Reports, 76*, 623-626. 1995.
DOI: https://doi.org/10.2466/pr0.1995.76.2.623

[17] S. J. Ho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individual flexibility scal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2005.

[18] B. L. Song., Lee, G. H., "The relation between self-complexity and subjective well-being throughout cognitive flexibility and self-concept clarit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3), 73-88. 2009.

[19] Crocker, J., "The costs of seeking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s, 3,* 597-615. 2002.
DOI: https://doi.org/10.1111/1540-4560.00279

[20] Crocker, J., Park, L. E.,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 392 - .414. 2004.

[21] J. Y. Shi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Th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4.

[22] Fibel, B., & Hale, W. D. "The generalized expectancy for success scale: A new meas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5), Oct 1978, 924-931. 1978.

[23] T. H. Kim. *Future expectations of children: Optimism and non-consistenc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1988.

[24] Dennis, J. P., & Vander Wal, J. S.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and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 241-253. 2010.
DOI: https://doi.org/10.1007/s10608-009-9276-4

[25] S. Y. Heo. *The role of cognitive flex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26] J. H. Kim., M. K. Kim., & S. H. Hong. *Writing an articl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Communication Books. 2009.

[27] Bollen, K. A., & Stein, R. A. "Bootstrapping goodness-of-fit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 205-229. 1992.
DOI: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4

[28] H. S. Lee., & J. H. Li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6.0.* Seoul: Bupmunsa, 2007.
DOI: https://doi.org/10.1002/9780470024737

정 은 선(Eun-Sun Jung) **[정회원]**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8월 ~ 현재 : 한라대학교 교직과정부 교수

<관심분야>
상담자 교육, 영성, 삶의 의미, 학습상담

하 정 희(Jung-Hee Ha)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8월 ~ 2016년 8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완벽주의, 적응, 상실, 다문화상담

이 성 원(Sung-Won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4년 4월 ~ 2015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한양상담센터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기업상담, 적응, 긍정심리학, 창의성